

저는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금지당하는 것은 역시 기분 나쁜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나역시 담배 연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버스나 학교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볼때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 역시 담배는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년간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때때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늦게까지 공부할 때나 힘들게 일할때등 담배가 도움이 될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결국 담배를 피울까 말까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니고 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혼자서 피울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피우지 않는 사람은 타인이 담배를 피울때 결정가능한 것은 그 사람에게 피우는것을 그만두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타인이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면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금연지역이라면 말 할 것도 없고, 흡연지역이라도 피우지 않는 사람이 있을때는 허락을 받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